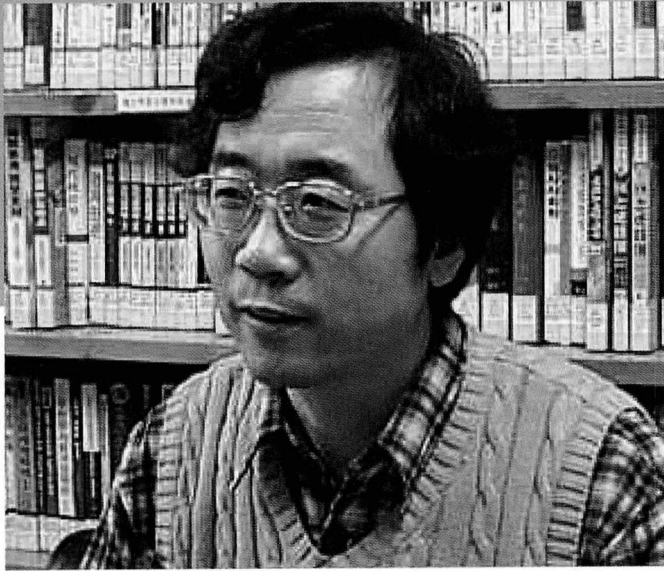


# 생활 세계에 참여하는 시민적 지식인 구상한다

《다시 지식인을 묻는다》 퍼낸 강수택 교수



강수택 교수는 서구 지성사와 국내 지식인론을 양대 축으로 삼아 현대 지식인론의 흐름을 일상 생활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대의 대안적 지식인상으로 '시민적 지식인' 상을 이끌어낸다. 시민적 지식인은 생활 세계를 지키면서 삶의 조건들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적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 말하는데, 시민적 지식인상의 근거에는 비판적 지성이 자리한다.

너는 지식인을 일차적 관심이 비판적·해석적·정치적인 사람으로, 인텔리겐치아를 기술적·실용적인 집단으로 규정했죠. 이에 반해 가 이거는 지식인을 정신적 태도를 지닌 어떤 한 인간의 유형으로, 인텔리겐치아를 특정한 사회적 기능을 담당하는 하나의 집합체라고 설명했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가 타계했다. '행동하는 지성'의 상징인 부르디외에 대한 애도는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로 이어졌고, 국내 언론도 '삶 자체가 참여'였던 세기의 지성인에 대한 추모글을 실었다. 강수택 교수(46, 경상대 사회학과)의 근작 《다시 지식인을 묻는다》(삼인)를 앞에 두고 문득 부르디외가 떠오르는 까닭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부르디외가 불합리한 사회·문화적 제도에 맞서는 지식인의 자기성찰을 강조한 것처럼 강교수도 '시민적 지식인'이란 대안으로 우리 시대의 참 지식인상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식인의 탄생배경과 발자취 살피

이 책에서 강교수는 서구 지성사와 국내 지식인론의 흐름을 두개의 축으로 삼아 기존의 지식인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한다. 제목은 논쟁적이지만 책 속에 녹아든 그의 어조는 차분하고 분석적이다. 강교수는 한국 사회의 대안적 지식인상을 찾기에 앞서 먼저 지식인이라는 용어가 탄생한 배경과 시대에 따른 의미변화의 과정을 살핀다. 지식인이 최초로 등장했던 시기를 언제로 잡는가 하는 문제가 지식인을 누구로 규정하는가 하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현대 지성사에 지식인(intellectual)이란 용어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때는 19세기 말이다. 흔히 '드레퓌스 사건'이 도화선이 돼 이른바 '지식인 선언'이 탄생하고, 스스로 지식인이라 부르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다. 한편 근대화가 늦은 동구 사회에서는 역시 19세기 후반에 인텔리겐치아(intelligentsia) 집단이 출현해 사회 변화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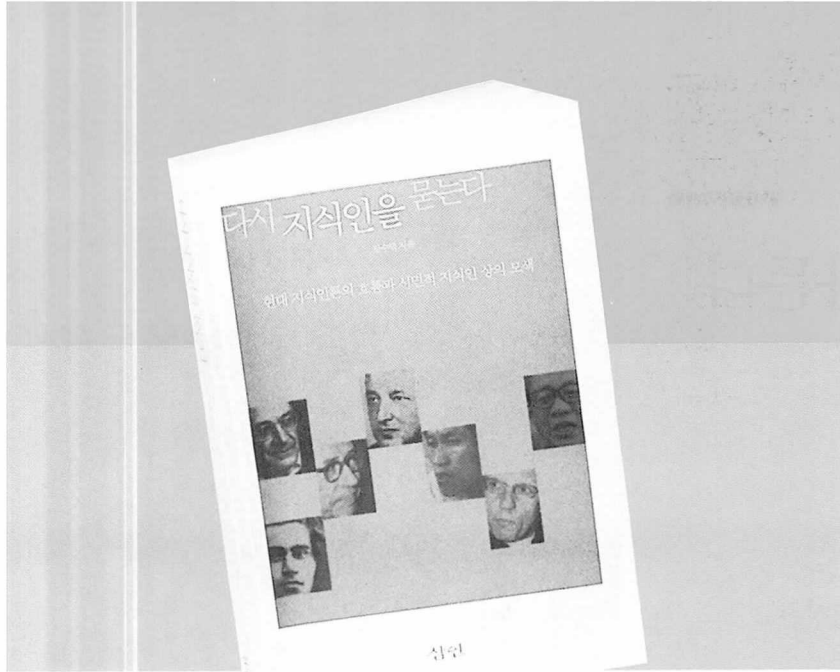
"지식인, 인텔리겐치아라는 용어는 발생 배경이 현저히 달라요. 그런 만큼 용어를 사용한 학자들의 견해도 많이 엇갈렸죠. 예컨대 굴드

### 일상 생활의 관점에서 대안적 지식인상 모색해

1부가 '지식인의 배경'을 살폈다면, 2부 '서구 사회의 지식인론'은 대표적인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서구 지성사의 흐름을 짚어간다. 강교수는 칼 만하임, 안토니오 그람시, 장 폴 사르트르, 미셸 푸코, 장 프랑수아 리오타르, 리하르트 바우만에 이르기까지 20세기 대표적인 지성의 지식인론을 저술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평가한다. 그리고 3부 '현대 한국 사회 지식인론의 흐름'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의 시대적 역할이 어떻게 변화해왔으며, 지식인론이 그런 시대적 요구에 어떻게 부응해왔는지 살핀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강교수가 서로 구별되는 서구 지식인론과 국내 지식인론을 '일상 생활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강교수는 이미 1998년 《일상 생활의 패러다임》(민음사)을 통해 '일상 생활의 관점'을 대략적으로 소개했는데, 《일상 생활의 패러다임》에서 한국인들이 일상 생활에서 어떻게 소외돼왔는지 밑그림을 그렸다면, 이 책에서는 '일상 생활의 관점'이라는 논리를 지식인이라는 구체적인 주제와 결합시킨다. 요약하자면 일상 생활의 관점은 총체적인 삶의 논리와 삶의 주체인 인간을 강조하는 인간주의적 관점, 곧 보통 사람의 일상 생활에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아래로부터의 관점이다.

"근대를 배경으로 탄생한 고전적 지식인상이 여러 면에서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탈근대주의적 관점이나 반지성주의적 관점에서만 지식인 문제에 접근할 수도 없죠. 오히려 근대의 잘못된 합리주의를 반성하면서 사람들의 일상적 삶에



삼인

삼인/A5신/376면/14,000원

대한 기본적인 애정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판적 지성을 전제하지 않은 지식인론은 공허하다**

서구 사회에서 지식인에 대한 사회학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20세기 전반 만하임과 그람시를 통해서였다. 강교수는 저작 시기에 따라 여러 가지 상이한 지식인론을 보여준 만하임의 이론을 ‘자유부동하는 지식인론’이라 이름 붙인다. 만하임이 지식인에게 정치인을 포함한 어떤 집단보다 높은 위상과 임무를 부여하고자 했다면, 그람시는 지식인에게 주요 계급의 부속적 위상과 임무를 부여한다. 그래서 철저히 기능적 관점에서 지식인론을 개진한 그람시의 지식인론은 ‘유기적 지식인론’이라 명명한다.

그런가 하면 사르트르는 참여적 지식인론을 주장한 지식인이었다. 그는 만하임의 자유부동하는 지식인론과 그람시의 유기적 지식인론을 모두 거부하고, 참여(engage)를 통한 실존주의적 지식인론을 강조했다. 리오타르는 과감히 지식인 시대의 종말을 선언한다. 리오타르가 지식인을 비판하는 기본 전략은 지식인 개념을 근대적 개념으로 파악한 후 근대성의 몰락이라는 관점에서 지식인의 종언을 선언하는 것인데, 그는 지식인의 본질을 규정하면서 지식인의 내적 속성과 사회적 기능보다 이에 대한 대중의 믿음을 중시했다.

3부 ‘현대 한국 사회 지식인론의 역사’는 2부와 함께 강교수가 펼치는 지식인론의 한쪽 날개를 이룬다. 강교수는 한국전쟁 이후부터 2000년까지 한국 사회의 지식인론을 분석한다. ‘창백한 인텔리론’으로 요약되는 1950년대는 대중의 삶이 전반적으로 소외된 반면, 지식인 중심적인 관점이 두드러진다. 4월 혁명과 5·16 쿠데타를 지나온 1960년대는 대중에 대한 관심이 점차 논의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참여 지식인론이 확립되고 균열되는 시기였다. 비판적 지식인론이 압도적이었던 1970년대는 ‘민중적 지식인론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1980년대에 이르면 진보적 지식인론과 이에 대한 비

판적 논의가 점차 두드러진다. 1990년대는 진보적 지식인론이 점차 쇠퇴하면서 새로운 비판적 지식인상에 대한 모색이 활발한 시기였다. 대중을 이해하는 방식도 민중, 시민, 문화 대중, 여성 등으로 다양해지고, ‘신지식인론’ 등 ‘유사 지식인론’도 불거져 나왔다.

“신지식인론은 단지 유사 지식인론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신지식인 개념이 지식인 논의에 깊숙이 들어올 수 있었던 여러 배경이 있었지만, 기존의 지식인 개념이나 지식인론에 대해 선언적 수준의 언급 이상의 것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식인의 역할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비판적 지성을 전제하지 않는 지식인론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관점입니다.”

**모든 시민은 잠재적 지식인이다**

4부 ‘시민적 지식인론’에 이르면 강교수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총괄하고 새로운 지식인론의 출발선에 선다. ‘시민적 지식인’ 상은 그가 1990년대 지식인 담론의 연장선상에서 이끌어낸 대안이다.

“시민적 지식인은 생활 세계를 지키면서 삶의 불합리한 조건들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적 사안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잠재적 지식인이고, 모든 지식인은 잠재적 시민이 될 수 있죠.”

강교수가 제안하는 시민적 지식인상의 근거에는 비판적 지성이 자리한다. 한국 사회에서 지식인의 정체성이 주로 지식인의 비판적 역할 속에서 형성돼왔기 때문이다. 그는 또 지식인으로서 생활 세계를 지키는 일에 참여하더라도 연대의 중요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현대 한국의 지성사, 특히 1980년대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기마다 쟁점은 달랐지만 지식인 논의는 대체로 활발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들도 많았죠. 시민적 지식인상은 우리 시민사회가 현실적으로 요청하는 지식인상을 개진한 것입니다.”

—박옥순 기자

**IMF 이후 노동세계의 변화 연구중**

강교수가 시민적 지식인론의 틀거리를 짠 것은 1998년, 안식년을 맞아 교환교수로 가 있던 영국의 워릭대에서였다. 그 후 귀국해서 지난해 봄까지 연구에 매진했으니 이 책을 집필하는 데 2년 6개월 남짓 걸린 셈이다.

“자료를 모으는 일이 가장 힘들었어요. 어떤 책은 주위에서 빌리기도 했는데 미처 돌려주지 못한 책이 아직도 자료더미에 파묻혀 있죠. 이제 빨리 제자리를 찾아줘야겠죠. 참, 이 책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요즘 도서관에서 자료 찾기가 예전보다 훨씬 수월해졌어요. 학교 도서관 사이에 상호대차 서비스가 개설돼 있거든요.”

근황을 물었더니, 지금은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세계의 변화를 주제로 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단다. 당분간은 이 연구를 잘 마무리할 생각이다.

“몇 가지 머릿속에 떠오르는 주제가 있는데, 사실 어떤 작업부터 시작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일상 생활의 관점’만은 지켜갈 생각입니다.”